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12. 11.(수) 09:31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1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59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19-62-312)**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 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가> 재허가를 신청한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한다.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경기방송에 대해서는 경영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다>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OBS경인TV(주)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라> 재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주)티비씨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 등을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6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은 36개 방송사 146개 방송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3>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5월 22일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한 바 있고,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5>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6> 심사평가 결과,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총 35개 방송사 중 650점 이상~700점 미만 34개사, 650점 미만 1개사로 평가되었습니다. <재허가심사 평가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7>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와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국내 진출 가속화에 따른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방송사로 하여금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게 하는 한편, 방통위에서도 관련 정책 재검토 등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UHD의 경우 최초 정책방안 수립 당시와 달라진 제작여건,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투자실적 등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방송사 간 논의를 통해 단계별 UHD 도입 일정, 편성비율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 재허가 조건입니다. UHD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조건입니다. 허가신청서의 UHD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할 것,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이 수립될 경우 그에 따른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할 것, 새로운 정책방안 수립 전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최소 20% 이상 편성할 것,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기간 중의 스튜디오 전환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UHD 제작시설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 제출한 투자 계획에 대하여 방통위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 요구에 따를 것,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권역의 수신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재허가 후 9개월 이내에 수신 불량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다음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관한 조건입니다. 방송사의 방송사업 이외 부대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방송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금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절차에 따른 자금운영 내역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비율 이상으로 할 것,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여수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조건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및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 문제를 해소할 것,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다음 광주방송에 대한 재허가 조건입니다.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조건 이외 2019년 재허가 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추가 이행계획'을 준수할 것,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지역민방에 대한 조건입니다. 최대주주 관련 보도와 관련 프로그램 방송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방송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금대여 시 자금운영규칙에 따라 심사하고 자금회수 후 회수여부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자금운영평가 결과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주)YTN라디오에 대한 재허가 조건입니다. 편성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편성책임자를 지정할 것, 자본잠식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 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8쪽 <8>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재허가 기술 심사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9>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심사평가 점수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한국방송공사 등 33개사에 대해서는 4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방송사업자별로 <붙임 1>과 같이 재허가 조건 및 권고 사항을 부가토록 하였습니다.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경기방송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 제고나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OBS경인TV(주)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주)티비씨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말에 (주)OBS경인TV, (주)경기방송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재허가 방송국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교부하고, 재허가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2019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를 발간하고,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붙임>자료입니다. <붙임 1>은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 <붙임 2> 2019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붙임 3> 방송국별 재허가 심사결과, <붙임 4>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5> 2019년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심사 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심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에서 나타난 대로 (주)경기방송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주주 구성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을 확인하는 사항, 이것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자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했고 그것이 위원회에 제출되고 나서 추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OBS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또 콘텐츠 투자가 계속해서 부실한 상황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경영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최다액출자자에게 주문했고, 이에 관한 자료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OBS는 중점 심사항목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50점 미만이기 때문에 과락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허가를 신청한 이후 TBC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보고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옥 상임위원

-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중앙 3사의 UHD방송, 지역MBC, 지역민방, 라디오, DMB 등 36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해 주신 표철수 위원님과 사무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상파 중앙3사의 UHD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사와의 논의를 통해 단계별 UHD 도입 일정, 편성비율 및 투자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또한 내년과 내후년으로 예정된 시·군지역에 UHD 도입 일정의 연기와 올해 15%에서 내년부터는 25%로 올리기로 한 UHD 의무편성비율의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지상파 UHD 도입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출력이 좋아서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던 700MHz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사와 방송사가 치열하게 경쟁했고, 지상파방송사들은 이 황금주파수를 받기 위해서 2016년부터 10년간 콘텐츠 투자 5조 8,000억원을 포함해서 총 6조 7,900억원의 투자계획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지상파방송사들은 두 차례의 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상파 UHD 도입 과정은 세계 최초 지상파 UHD를 명분으로 지상파 3사가 요구하고 국회가 개입해서 결정했지만 주무부처인 제3기 방통위 역시 좀 더 치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 관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의하면 UHD TV의 보유 가구수는 9.5% 수준이고, 지상파TV의 직접수신가구는 4.2%에 불과합니다. 시청 수단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는데 콘텐츠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없고, 또한 시청자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서 투자할 여력도 또한 의욕도 생기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4기 방통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지상파 UHD 방송 정책 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지상파방송 3사는 UHD 방송 설비 구축을 완료했고, 제작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스튜디오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UHD 도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콘텐츠 제작은 UHD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현실 상황과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UHD 방송의 정착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가 지상파방송 UHD 도입 및 진행과정을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받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향후 지상파 UHD 방송의 정책 방안 수립을 전제로 UHD 방송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 20% 제시와 콘텐츠 투자액, UHD 제작 시설의 투자,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사무처에서 부가한 것은 교육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심사에서 문제가 된 3개 방송사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티비씨 대구방송입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티비씨는 재허가 심사 과정에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함으로써 방송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재허가 심사 자체를 형해화시켰습니다. 향후 변경 승인심사와 재허가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재허가 심사를 위해 들였던 그동안의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티비씨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점수가 650점 미만인 경기방송과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OBS경인TV는 재허가 거부에 해당하지만 외부 심사위원들은 재허가 거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방송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낮고, 주요 주주 구성 및 이사회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방송법상 소유구조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OBS경인TV의 경우도 시정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최대주주의 의지와 계획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티비씨와 경기방송, OBS경인TV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 수준의 강력한 의견 절차를 거쳐 각 사업자의 개선의지를 명확히 확인한 뒤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결주문에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의결에 동의하시는 허 욱 위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표철수 심사위원님 심사위원장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사무처 노고에도 특별히 감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심사결과로 나타난 UHD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 욱 위원님의 말씀에 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로 더 확인할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사무처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구민방 티비씨 같은 경우 어처구니없는 그런 절차를 강행해서 심사가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방송 정파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말 안에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허가받지 못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정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속히 절차를 진행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기방송 같은 경우 지금 650점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불합격을 받은 셈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경기방송이 혹시 방송 내용을 가지고 편파방송, 또 오보방송, 막말방송 이런 것으로 해서 방심위 법정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경기방송이 수원 일대 또 경기도 일원에 방송되는 건실한 방송으로 20년간 그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이상한 편법이 있고, 또 주주 지분이 불투명하다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전횡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어서 경영의 투명성을 봐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송을 잘하고 있는 방송사가 어떤 임원의 불찰이나 또는 재무구조의 부실로 방송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와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모두들 열심히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취재기자나 또는 방송에 임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런 임원 이사회의 전횡 때문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경기도 일원의

유일한 지상파FM방송인데 정부가 허가를 내준 이상 우리의 정책목표는 이렇게 규제를 세계 해서 문을 닫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개선을 시켜서 정상적인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감독업무를 수행 하면서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런 너무 강경일변도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개선시켜서 경기방송을 애청하는 청취자들에게도 그것은 시청자 복지에 관한 부분이고, 또 지역의 시청권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일한 라디오 FM방송사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하게 혹시 방송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방송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대주주들의 지분이 초과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나 임원의 그런 독단적인 방송사업자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일탈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따져서 개선사항을 시정명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OBS도 과거 두 차례 합격점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650점 이상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점 심사사항에 50% 미만이 돼서 과락이 생기는 바람에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역시 열심히 인천지역, 또 경인지역 전체의 유일하지 않지만, SBS도 있지만 어쨌든 지상파의 방송사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서 또 마찬가지로 지역방송 권역에 부응하는, 그런 허가에 부응하는 그런 시청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개선시키고 시정시켜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주주의 경영이 많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CBS의 검토 의견을 보면 '회사의 경영 안정과 정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독려를 해서 그것을 보고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OBS 같은 경우 지금 투자계획과 또 본사 인천 이전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이것도 역시 이달 안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정책국에서 업무 과중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잘 진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최다액출자자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 육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 절차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렸습시다만 전체적인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이 각 사별로는 뒤에 다 첨부되어 있고, 아까 장 과장이 보고드린 것은 주요 재허가 조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방송은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허가 과정에서 보니까 어쨌든 주요 주주가 결국 실제 경영을 다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이사회에서 직원 징계를 결정하는 형태까지, 소유·경영 분리나 전체적인 민방 재허가 심사에서 주로 보는 경영 투명성, 편성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좀 더 확인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저는 다 존중하고, 또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석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통위가 강경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화적으로 잘 개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그동안 방통위가 강경일변도로 해 왔던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표철수 위원님께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방송의 경우 이미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특히 이사회에서 직원을 징계한다든가 이런 전횡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는지, 심사기간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쪽 경영층에서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혹은 지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이런저런 심의를 책임졌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공적책임 차원에서 소유구조 부분에 있어서 내용만 볼 수 없고, 소유주의 공적 마인드, 준법의지도 분명히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기관으로서 강경일변도로 규제만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모럴 해저드는 타 방송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 위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김 위원께서 저에게 궁금한 것 이야기해 달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의 경우에는 지난번 재허가 심사 때도 당시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소유 지분의 위반 혐의가 있다', '의심이 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철저히 확인해야겠다는 것이 심사위원회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전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출석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해외출장을 가서 못 나온다" 그래서 "해외출장을 간 증명을 보내라"고 했더니 "사실은 해외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사내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으로 충격으로 받아서 못 나온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방송의 경우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직원은 부장까지만 할 수 있다, 직원들은 그 위의 직급으로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분을 가진 쪽에서 여러 가지로 전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송 문제도 저희가 보완자료를 확실하게 받고 이것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료제출은 그냥 '확인서' 이렇게 해서 해당 주주의 도장 찍어서 사업계획서에 항상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 공증확인서를 제출하라', 그런데 그 자료들이 아직 충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오는 것을 봐서 위원회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OBS는 심사 과정에서 2년 연속 흑자를 냈고 올해도 흑자가 예상이 된다, 고로 3년 연속 흑자를 내서 굉장히 개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2017년, 2018년 콘텐츠 투자액 138억원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흑자를 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여전히

상당한 적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흑자를 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정된 콘텐츠 투자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떠한지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못 지키면 내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누구보다도 최다액출자자의 책무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충분히 들여다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번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하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민방이나 또 지역 일부 MBC 같은 곳에서는 사외이사나 감사가 14년씩 계속 근무하고 10년 근무, 8년 근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것은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해서 이번 조건에 부가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재허가 거부 시 경과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정과 우려를 말씀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법 및 시행령 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국 허가가 취소되거나 재허가가 거부된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법률상의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결국 경과규정이 적용되면 정과로 인한 시청자 및 청취자들의 불편은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법적으로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1년간의 유지명령...

○ **김석진 부위원장**

- 1년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1년간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특별히 원안 의결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3개 방송 사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결은 추후로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맞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좀 전에 표 위원님께서 지역민방과 지역MBC 관련 상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첨언하면, 지금 지역방송이 방송환경 변화로 상당한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부 지역방송사는 방송사업 이외 부대사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태양광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영화관, 카페 등 부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대사업 비율이 상당 부분 높아지면 방송사의 공적책무를 소홀히 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또 부대사업에 방송의 여러 가지 저널리즘 기능이 동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사업 매출이 방송사업 프로그램 제작에 재투자되고 있는지, 또 부대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도 사무처에서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이 조건에 들어가 있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조건에 넣었습니다. 부대사업 부분이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래 방송의 공정성, 특히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의견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2019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2019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사유는 2019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2>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대상은 89개 사업자 160개 채널로 가 그룹 80개, 나 그룹 80개입니다. 실시간 텔레비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채널 중 전년도에 10개월 이상 방송 실적이 있는 채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3쪽 사업자 구분은 사업자의 규모,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를 고려하여 가·나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가’ 그룹은 재허가·재승인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채널이고, ‘나’ 그룹은 ‘가’ 그룹 속하지 않는 PP가 운영하는 채널이며, 공급분야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A, B, C 3개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방송콘텐츠 제작 관련 자원·프로세스·성과 분야의 1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평가결과는 가·나 그룹의 공급분야(A, B, C)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매우 우수, 우수 등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 <4> 평가 결과입니다. ‘가’ 그룹은 총 80개 채널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매우우수 등급은 12개 채널로 A분야는 엠비씨 스포츠플러스 등 2개, B분야는 드라마스 등 7개, C분야는 투니버스 등 3개 채널이며, 우수 등급은 20개 채널로 A분야는 JTBC GOLF 등 4개, B분야는 엠비씨 뮤직 등 11개, C분야는 중화TV 등 5개 채널입니다. 다음 ‘나’ 그룹은 80개 채널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매우우수 등급은 13개 채널로 A분야는 바둑TV 등 3개, B분야는 애니맥스 등 5개, C분야는 소비자TV 등 5개 채널이며, 우수등급은 19개 채널로 A분야는 서울경제TV SEN 등 4개, B분야는 가요TV 등 7개, C분야는 마운틴TV 등 8개 채널입니다. 등급 분야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5>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매우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공표하고,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본 안건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는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 제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평가에 참여한 사업자는 보고받으신 대로 89개 사업자 160개 채널인데 전년도 77개 사업자 144개 채널보다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이 평가는 규제 성격이 아니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 ‘우리 평가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가 2018년 한 해 동안 PP사업자 자원·프로세스·성과 이 세 분야 경쟁력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전년도 평가방식과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등급이 전년도보다 상승한 채널이 가 그룹에서는

2개 채널, 또 나 그룹에서는 3개 채널이 늘어났습니다. 또 매우우수 밑에 우수 등급으로 등급이 향상된 채널도 가 그룹에서 3개, 나 그룹에서 4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채널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받으신 대로 가·나 그룹에서 각각 총점 1위 사업자 엠비씨플러스, 채널명은 엠비씨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또 한국바둑방송, 채널명은 K바둑, 이 두 채널이 '제작역량 우수상' 수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총점만 높다고 해서 주는 방식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또 한 번 받았다면 자꾸 독식하는 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두 사업자는 3년 안에 따로 수상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점 기준 1위 사업자를 이번에 수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올해도 등록 PP 채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해 주신 김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평가항목을 크게 개선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아마 PP사업자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대한 PP사업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김석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평가에 참여했던 PP채널이 작년 144개에서 올해는 160개로 증가했습니다. 평가에 참여하는 PP채널이 늘어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첫째는 방송평가가 평가결과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 계량평가 점수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는 방송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의 경쟁력, 또 제작과 유통의 경쟁력, 경제·사회적 성과 경쟁력 평가를 통해 콘텐츠 제작 전반을 컨설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라는 점에서 진흥 성격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우수 등급이나 우수 등급을 받는 PP는 공신력 있는 정부 평가를 통해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널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위원회의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제작역량 우수상'을 받거나 매우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채널 이미지 개선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과기정통부가 지원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심사 때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는 이처럼 PP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컨설팅 기회와 홍보의 기회, 또 정부 지원의 수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품질제고를 유도하는 좋은 진흥정책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우리가 규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을 육성하거나 진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것을 강조했는데 사무처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즉 진흥적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의 개선이나 운영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이것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작역량 평가라는 것은 결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 또 투자 기법 이런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콘텐츠 전쟁이기 때문에 콘텐츠만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허 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채널을 변경하는 시기가 연말에 하는 것도 있고, 또 내년 봄에 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통위가 평가한 이런 제작역량 평가결과는 물론 과기정통부 쪽도 충분히 인지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우수한 PP들이 좋은 곳에 론칭이 잘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사무처에서 별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김석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평가가 매우우수, 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미흡, 매우 미흡도 25%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는 주요한 이유는 우수, 매우 우수 이런 우수기관에 대한 격려와 칭찬도 중요하지만, 또한 미흡, 매우미흡 이런 곳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도 저는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미흡이나 매우미흡은 어떤 방송이 되었는지 정보가 없어서 제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로는 저는 공공채널이 과연 공공채널답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TV 같은 경우 지금 공공채널이라고 받아놓고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이런 오래 된 드라마를 이방, 삼방, 사방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편성표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편성표에는 공적 방송편성을 80%, 기타 20%로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서 이런 공공채널에 대해 이런 평가를 통해 제작역량이 따라야 편성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평가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컨설팅하거나 아니면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2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도출되는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별됩니다. 지금 평가의 취지상 제작능력을 고취시키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우우수와 우수는 방통위에서 공개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개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과정에서 위원님께 전체 사업자 분포를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2쪽에 있는 평가 개요의 평가 대상에 대해 제가 보고드릴 때 89개 사업자

160개 채널은 그 밑에 있는 박스의 내용은 제외되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채널, 지금 말씀하신 K-TV나 이런 것들은 제작역량 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데 이 평가 자체가 사업자의 창의적인 제작 등을 보기 때문에 단순한 재전송이라든지 사회 상계에 맞지 않는 채널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공채널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공채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원래의 공적 방송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로 통보만 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들을 모르면 평가에서 잘한 것만 알고 못한 것은 몰라도 되는지 이것도 다 같이 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평가의 취지가 저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은 사무처에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하지요.

○ 김재철 방송기반국장직무대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공공채널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대략적인 방향은 말씀드렸고,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도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3분 폐회 】